

왔다네. 그런데 그만 산을 오르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너희들이니, 우리 아가들?”

두 아이는 흑인들과 함께 대답했네.

“네, 저희예요.”

그러자 곧 두 어머니와 마리가 아직 이글거리는 잉걸불을 들고 두 사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네.

“이 가여운 것들,”

라 투르 부인이 말했어.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다 오는 거니? 너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비르지니가 말했네.

“흑장에 가서 도망쳐 나온 불쌍한 여자 노예의 용서를 대신 구하고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굶어 죽어 가고 있길래, 집에서 아침으로 먹으려던 것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탈주 노예들이 저희를 데려다주었네요.”

라 투르 부인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딸에게 입을 맞춰 주었네. 그러자 비르지니는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 얼굴을 적시는 것을 느끼곤 어머니에게 말했어.

“제가 겪어온 모든 고난이 어머니 덕분에 보상받는답니다.”

마르그리트도 정신없이 기뻐하며 양팔로 팔을 끌어안고